

# 체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3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8
IV. 국제신인도 .....	11
V. 종합의견 .....	13

# 체코 (Czech Republic)

## I. 일반개황

면적	79천 km <sup>2</sup>	G D P	1,762억 달러(2007년)
인구	10.19백만 명(2007년)	1 인 당 GDP	17,296 달러(2007년)
정치체제	의회공화제(내각책임제)	통화단위	Koruna
대외정책	2010년 유로화 도입 추진	환율(달러당)	20.29(2007년 평균)

- 1993년 1월, 체코는 체코슬로바키아연방에서 체코공화국으로 분리됨. 1인당 국민소득은 2006년 기준으로 17,296달러이고 세계은행 분류에 따르면, 고소득국(HIC)에 분류됨.
- 전반적인 경제수준 및 체제전환 성과 측면에서 폴란드, 헝가리와 더불어 체제전환 선도국가이며, OECD, NATO 가입에 이어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함. EBRD 및 OECD에 따르면, 동유럽 체제전환국 중 시장경제단계(no longer in transition)에 있는 국가로 속함.
- 활발한 FDI 유치를 통해 자동차를 비롯한 기계 및 운송장비 등 첨단 고부가가치 분야로 산업중심이 이동하고 있음. 특히, EU 가입 이후 체코의 생활 기술수준이 점차 서구화되면서 산업구조도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R&D, IT 등 고부가가치적인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음.
- 국제신용도 평가기관으로부터 매우 양호한 국제신인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 유로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sup>e</sup>
경제성장률	3.6	4.5	6.4	6.3	6.2
재정수지 / GDP	-4.2	-3.3	-1.9	-3.0	-1.9
소비자물가상승률	0.1	2.8	1.9	2.5	2.9

자료: IMF, EIU.

#### □ 2005년 이후 6%대의 경제성장률 지속

- 2000년 이후 해외직접투자(FDI) 유입 증가 및 주요 수출시장인 EU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체코 경제는 성장세로 들어섰으며, 2005년에는 강력한 수출호조의 영향으로 상품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6.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음.
- 2006년에도 전년과 유사한 6.3%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는데, 민간 부문 소비 및 총고정자본투자의 증가가 주된 성장요인으로 분석됨. 민간부문 소비가 실질임금 상승 및 실업률 하락으로 급증하였고, FDI 유입에 따른 자동차 산업 중심 수출호조로 상품수출이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음. 2007년에도 전년과 같이 민간부문 소비 증가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6.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

#### □ 재정수지 적자 개선

- 2006년에는 총선과 관련된 정부지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지속, 관광산업 호조로 인한 부가가치세 수입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3% 수준으로 억제되었으며, 2007년에도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로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 대비 1.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가계혜택 확대 및 최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임 정권에 의해 취해진 각종 사회보장 조치들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2007년 재정개혁 프로그램 채택에 따라 4분기이후 재정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 소비자물가 상승 압박

- 2005년 고유가, 통신요금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통화 강세, 가계소비 증가율 둔화, 임금 상승률 둔화, 식료품 가격의 안정 등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로 안정되었음.
- 2006년에는 정부 통제가격(전기, 연료, 가스, 주택가격 및 임차료)의 인상이 물가상승을 주도하면서 연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5%로 상승하였으며, 2007년에는 국제 시세를 반영한 식료품 및 연료 가격의 급등 현상에 따라 2.9%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특히, 4사분기 물가상승률이 4.9%로 추정되어 정부의 간접세 및 통제가격 인상, 국제 고유가 및 식량가격 급등 상황이 소비자 물가 상승 압박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 경제 구조 · 정책

#### □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이후 산업 다각화 성공

- 1989년 공산체제가 붕괴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도소매, 금융, 관광 등 서비스업의 GDP 대비 생산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 2006년 기준 GDP 대비 산업별 생산비중  
 제조업 39.6%, 공공서비스 11.0%, 건설업 6.7%, 금융업 3.6%,  
 농림수산업 2.7%, 기타 서비스업 36.4%
- 2005년 기준 산업별 고용비중  
 서비스업 54.7%, 제조업 32.4%, 건설업 6.5%, 농업 3.6%
- FDI 유입에 따른 투자 증대로 기계류, 전자부품, 운송설비 부분의  
 산업 생산성이 높은 편으로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관광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쟁력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자동차산업이 성장하여 중부유럽의 자동차생산 중심지(Cluster)  
 로서 부상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로 운송설비,  
 고무 및 플라스틱, 기계류 및 설비제품의 생산량이 급증하였음.
- 또한, 체코 전기전자협회(EIA)에 따르면, 전기부품, 가전제품에서  
 반도체기술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전자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 생산규모의 15.9%를 차지하여, 전자산업  
 종사자 199,000명, 매출규모 154억 유로를 기록함.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으로 투자증대 지속
- 1990년대 이후 대형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으로 FDI 유입이 증가  
 하면서 중동부 유럽 최대의 FDI 유입국(1990년대 연평균 유입액 21억  
 달러)이 되었으며, 2004년 EU 입에 따른 투자 호조로 대형 민영화  
 사업이 부재한 가운데도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재투자와 신규 투자  
 증가로 인해 50억 달러의 FDI 유입을 기록함.
- 2005년 Cesky Telecom과 Vitkovice Steel의 민영화로 FDI 유입액이  
 급증하여 117억 달러(총고정자본투자의 36.1%)에 달하였으며, 2006년에는  
 민영화 실적 저조로 60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2007년에는 체코 관광  
 공사의 민영화,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부품 공장 건설시작 등 대규모  
 FDI 사업으로 인해 3분기 연중 FDI 유입이 57억달러로 추정됨.

- 현대자동차는 Ostrava 지역에 신규 자동차공장 설치를 위해 10억 유로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에는 연간 승용차 30만대, 변속기 60만개 생산능력을 보유할 계획임. 현대자동차의 투자계획은 2006년 10월에 승인되었지만 FDI 유입 통계에는 2007년 실적으로 반영됨.

□ 긴축 통화정책 기조에서 2008년 하반기 금리인하 예상

- 체코의 통화정책은 물가억제 체계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자 2007년 네 번에 걸쳐 기준정책금리를 각 25bp 인상하였으며, 2007년 4분기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 정책 목표(3%, 변동폭 ±1% 포인트 이내)를 초과하여 4.9%에 이르자, 2008년 2월, 다시 25bp 인상을 단행하여 동 금리는 3.75% 수준임.
- 한편, 2008년 1월 체코 중앙은행은 향후 시장금리가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2008년 하반기 금리인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함.

□ 재정개혁 프로그램 도입으로 재정수지 안정적 관리

- 2012년 유로화 도입을 위해서는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 수준으로 억제하여야 함. 2008년 1월, EU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체코가 2007년 성공적인 재정수지 관리로 2008년에는 2.9%(ESA 95 기준\*) 이하의 재정수지 달성이 기대된다고 언급하였으며,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요구하는 조건의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공기업의 시장성을 분류하여 정부 재정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함. 따라서, 민영화 수익등이 재정수입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됨.

- 체코 의회는 2007년 8월 조세 및 사회복지제도 개혁을 골자로 하는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승인하였음. 이에 따라 개인소득세율이 누진제에서 단일세율(2008년 15%, 2009년 13.5%, 2009년 12.5%)로 변경되어 세율이

인하되었지만, 공제대상의 축소로 과세표준이 확대되어 실효세율은 2008년 23.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부가가치세가 5%에서 9%로 인상되고, 의료서비스 사용시 환자도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게 되며, 공무원 정년의 연장으로 연금기금 확대가 기대됨.

- 이와 같은 조세 개혁정책 시행과 정부지출 규모 축소 노력으로 향후 재정수지 적자폭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최근 물가 상승으로 공공부문(교사등)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시위가 예견되고 있으며, 2008년 중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연금 지급액이 4% 인상될 예정이어서 재정수지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임.
- 한편, 의회승인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결과, 사회복지 분야의 개혁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장기적 재정수지 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사회복지개혁안이 마련하여 정부 지출 규모를 더욱 축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sup>e</sup>	2007 <sup>e</sup>
경 상 수 지	-5,785	-5,749	-1,939	-4,586	-5,260
경 상 수 지 / G D P	-6.3	-5.3	-1.6	-3.2	-3.0
상 품 수 지	-2,519	-529	2,522	2,979	5,835
수 출	48,705	67,220	77,951	95,119	121,483
수 입	51,224	67,749	75,430	92,139	115,648
외 환 보 유 액	26,294	27,844	29,138	31,054	34,449
총 외 채 잔 액	34,807	45,561	46,410	58,275	68,061
총 외 채 잔 액 / G D P	38.1	41.6	37.2	40.8	38.6
D . S . R .	9.3	10.4	11.5	10.3	10.7

자료: IMF, EIU, World Bank, IIF.

□ 2005년 이후 상품수지 흑자 지속

- EU 회원국과의 경제통합 가속화, 수출품의 품질향상에 따른 대외 경쟁력 강화 등으로 수출실적이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어, 민간소비 및 투자 급증에 따른 수입규모 증대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후 상품수지는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
- 2007년에는 전년 대비 상품수출증가율 27.7%, 상품수입증가율 25.5%를 기록하면서 상품수지가 대폭적인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자동차 수출 호조에 따른 기계 및 운송장비 거래가 활발해진 반면, 광물연료, 운할유 및 자재 수입이 축소된 데 따른 것임.
- 주요 교역상대방은 EU 국가들로 전체 수출의 85.7%, 수입의 85.2%(2007년 1~10월)를 차지하며,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자동차를 포함한 운송장비임.

□ 주요 교역품목 및 대상국(2006년 기준)

- 1990년대 중반부터 자동차 산업분야에 FDI 유입이 증가하면서 수출구조가 고부가가치 상품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기계·운송장비가 최대 수출 품목임.
  - 주요 수출품목: 기계·운송장비(55.9%), 중간재(18.9%), 화학제품(5.7%)
  - 주요 수입품목: 기계·운송장비(44.6%), 중간재(18.9%), 원자재·연료(11.7%)
  - 주요 수출국: 독일(31.7%), 슬로바키아(8.4%), 폴란드(5.7%), 오스트리아(5.1%)
  - 주요 수입국: 독일(31.8%), 네덜란드(6.5%), 슬로바키아(6.1%), 폴란드(6.0%)

□ 2007년 경상수지 적자 개선

- 2005년 무역실적 호전으로 1999년 이후 최저수준의 경상수지 적자(1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06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으며 2007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53억달러로 추정됨. 그러나 2007년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 -3.2%에서 -3.0%로 소폭 개선되었음.

- 상품수지 흑자 증대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악화된 주요 원인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윤증가 및 외국인 근로자 임금상승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 확대와 EU 기금 유입 둔화로 인한 경상이전수지의 적자 전환(2006년 이후)으로 분석됨.

□ 코루나화 강세 및 외환보유액 증가세 유지

- 2007년 들어 배당지급을 위한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수요, 저금리 코루나화(Koruna)를 이용한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등으로 코루나화는 유로화대비 약세를 나타내었으나, 8월 이후 국내금리가 상승하자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라 다시 강세로 전환하였음. 추가 금리상승 기대 및 지속적인 대규모 FDI 유입에 힘입어 코루나화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말 약 344억 달러로 추정되며, 체코의 유동성 포지션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평가됨.

### III. 정치 · 사회동향

#### 1. 정치 및 국제관계

□ 연정의 장기 안정성 불확실

- 2007년 1월 시민민주당(ODS)를 중심으로 기독교민주연합-국민당(KDU-CSL)과 녹색당을 포함한 연립정부가 구성되어 단기적으로는 정권 안정성이 확보되었으나, 야당이 전체 200석의 하원의석 중 100석을 차지하여 야당과의 협력관계에 따라 정국 운영이 큰 영향을 받는 구조임.

- 하원의석 분포(2006년 6월 총선결과)
    - ODS 81석, KDU-CSL 13석, 녹색당 6석, CSSD 71석, KSCM 26석
  - 각료회의 의장: 토폴라넵(Mirek Topolánek) 총리(2006. 9 선출)
  - 장기적으로는, 2008년 2월 클라우스(Vaclav Klaus)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그의 사회민주당(CSSD)과의 대연정 주장이 힘을 얻어 현재 군소 정당과의 연정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음.
  - 2008년 도입되는 사회복지제도 개혁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ODS는 대중의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1월 여론조사에서 최대 야당인 CSSD 의 지지율은 ODS보다 7~10% 정도 앞선 것으로 집계되었음. CSSD가 2월 의회에서 의료보험부문 개혁 정책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상관없이 더욱 확고한 지지를 확보할 것으로 보임.
- 주변국과 협력관계 강화 모색
- 1999년 3월 NATO에 가입하였으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콩고, 이디오피아, 그루지야, 라이베리아 등에서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4년 5월에는 EU에 가입하여 서부유럽과의 정치·경제 통합을 주요 외교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음.
  - 2005년 8월에는 2차 대전 중 체코 영토인 주데텐(Sudeten)에 거주하던 수백만 명의 반나치 독일인들을 전후 독일 및 오스트리아로 추방하거나 학살한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함으로써 독일 및 오스트리아와의 관계가 개선되는 등 주변국과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미국과의 우호관계 유지

-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파병으로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 6월 미국은 유럽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전략의 일환으로 체코에 레이더기지 설치를 요청하였음.
- 2008년 2월 초 폴란드가 미국의 요청을 승낙하자, ODS는 미국과의 조속한 관련협약 체결을 주장하고 있으나, CSSD·KSCM 등 야당 뿐만 아니라 연정 내 파트너인 녹색당도 이를 반대하고 또한 국민 대다수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의회의 큰 지지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됨.

2. 사회 및 소요사태

□ 사회불안 요인 미미

- 재정수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금 및 의료보험 등 복지혜택의 축소가 불가피한 점 등이 국민들의 불만으로 존재하나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님.
- 2005년 이후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말 실업률 6.6%로 추계되어 주변국인 폴란드(12.8%), 슬로바키아(8.4%)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임.

□ 소요/사태 발발 가능성 희박

- 인구의 80% 이상이 체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민족 동거에 따른 내전 및 내란 가능성이 없으며, 종교적 갈등이나 체제 안정성을 위협할 만한 기타 갈등요인도 없음.

## IV. 국제신인도

###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 2008년 초 OECD 및 Fitch 신용등급 상승

- 2008년 1월 개최된 OECD 국가위험도 평가 회의에서 2006년 및 2007년(추정치)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 기준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여 체코의 국가위험도 평가등급이 종전 1등급(2007. 1)에서 0등급(국가위험도 없음)으로 상향 결정됨.
- 또한, 2008년 3월 Fitch는 재정개혁 정책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전망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안정적인 외채상황을 반영하여 체코의 국가신용등급을 A(2005.8)에서 A+ 등급으로 상향 조정함.

#### ※ 주요기관 신용등급

OECD : 1등급(2007. 1) → 0등급(2008. 1)  
 Fitch : A(2005. 8) → A+(2008. 3)  
 S&P : A-(1998.11) → A(2007.10)  
 Moodys : Baa1(2002. 9) → A(2002.11)  
 ICRG : 35/140(2007. 2) → 39/140(2008. 1)  
 I. I : 33/174(2007. 3) → 33/174(2007. 9)  
 Euromoney : 37/185(2007. 3) → 37/185(2007. 9)

###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최고 부보율 적용, 재량한도 적용
- 영국 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단기 전액인수 가능

### 3. 외채상환실적

□ 리스케줄링 실적 없으며, 외채관리 안정적

- 2007년 9월 말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ECA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1.1억 달러, 중장기 6.4억 달러로 총 7.5억달러임. 이중 연체금액은 820만 달러로 전체의 1.1%이고, 리스케줄링은 없음.
- 체코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2007년 9월 말 기준 총 외채는 672억 달러이며, 이중 약 70%가 장기외채임. 최근 국가신인도 향상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 차입조건이 양호하며, 지속적인 FDI 유입 등을 감안할 때 외채상환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외채상환능력 양호

- 총 외채잔액은 2007년 말 기준으로 약 681억 달러로 추정되어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이는 체코의 외채가 대부분 유로화로 표기되어 있어 미달러화 약세로 인한 환율변동분이 반영된 것이며 신규 차입은 대부분 상업은행에 의해 이루어짐.
- 양호한 국제신인도로 외화 차입비용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경제성장세 지속, FDI 유입증가 등을 감안할 때 외채상환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대 체코 무역 급증 추세

- 우리나라와 체코의 교역규모는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매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2007년에는 13.4억달러에 달하였음.

- 대 체코 수출실적이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에는 전년대비 71.3% 증가한 9.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는 체코의 EU 가입 이후 현지 경제호전에 따른 구매력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임.

□ 해외직접투자협황(2007년 말 총투자 기준): 701,498천 달러

- 대 체코 투자실적은 건당 규모가 크고 투자실적이 연도별로 기복이 있는 편이나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07년 말 기준으로 대 체코 직접투자는 우리 기업의 국가별 투자실적에서 25위 수준임.
- 주요 투자업종을 제조업 및 도소매업이며, 제조업의 세부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 수송기계(자동차) 등에 집중 투자된 것으로 조사됨.

## V. 종합의견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개혁 프로그램이 2007년 8월 의회 승인을 거쳐 2008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폭의 축소가 전망됨. 또한, 상품 및 서비스 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여 2007년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다소 개선되었으며, FDI 유입에 따른 투자증대, 관리 가능한 외채구조 등으로 경제 펀더멘털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좌파 및 우파 연합정당들이 각각 하원의석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로 강력한 정책 시행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단기적 정치 불안 요소는 없음.
- 2008년도 초 OECD 및 Fitch의 국가신용도 등급 상향 조정으로 국제 신인도는 중동부 유럽 국가 중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전문연구원 구윤정(☎02-3779-6665)

E-mail : [kooyj@koreaexim.go.kr](mailto:kooyj@koreaexim.go.kr)